제주도 돼지콜레라 항체 재발방지 대책

농림부는 지난해 제주도에서 돼지콜레라 항체 발생과 관련,
동 지역에 대한 청정화유지를 위하여 재발방지대책을 마련하여 시달한 바 있으나
별다른 진전 없이 항체양성 돼지가 계속 발생하고 있는 실정이므로
해당기관별 돼지콜레라 항체 재발 방지대책을 지속적으로
추진 · 이행해 줄 것을 협조 요청하고 있다.(편집자 주)

□ 수의과학검역원은 지난해 11월 제주도 돼지에서 검출된 돼지콜레라 항체는 야외바이러스나 예방주사에 의한 것이 아니고 예방주사를 맞은 돼지의 혈액 등이 들어간 사료에 의한 것이라고 발표하였다.

○ **이는 돼지콜레라 항체가 이 병에 걸렸거나 예방주사를 맞은 돼지에서만 나오는게 아니라 오염된 사료를 먹인 경우에도 나올 수 있다는 새로운 사실이 밝혀진 것임.**

○ **검역원은 그동안 검출원인을 명확하게 규명하기 위하여 다각적인 역학조사와 사육돼지의 급여시험, 전문가 토의 등을 거쳤다고 설명하였음.**

□ 현재 돼지콜레라 예방접종을 실시하고 있는 육지의 일부 농가가 도축장 출하직전 예방접종을 함으로써 돼지의 혈액내 백신주가 잔류케 되었고, 이 상태의 혈액을 혈분(단미사료) 등으로 제조하면서 열처리를 제대로 하지 않을 경우 해당 혈분제 등에 백신주(항원)가 존재할 수 있다는 것이다.

○ **검역원은 오염된 혈분외에도 농가가 질병을 예방하기 위해 면역 혈청요법이나 불법자가 백신을 실시하여 백신주가 전파될 가능성도 있다고 설명하였음.**

* 면역혈청 사용
최근 PRRS, PMWS 등의 치료 · 예방을 위하여 이들 질병의 면역항체가 형성된 큰 돼지의 혈청을 자돈에게 주사하는 방법.

* 불법 자가백신
농가가 예방을 목적으로 돼지에서 분리한 병원균을 자체적으로 제조하여 사용하는 백신으로 정부의 허가나 검증을 받지 아니한 예방약.

□ 농림부는 돼지콜레라 백신항체 발생 재발방

14-축산정책(54~55) 1956.9.10 10:1 AM 페이지55

지 대책을 마련하고, 항체발생으로 중단된 제주도산 돼지고기의 일본 수출을 위해 일본정부와 협상을 추진하고 있다.

○ **재발방지 주요대책은**

- **제주도 사육돼지 급여사료(혈분 · 혈장 등)에 대한 위생 · 방역 및 면역혈청요법 · 불법자가백신 등의 관리기준을 마련하고**
- **항체가 나온 돼지를 빠른 시일 내 없애기 위해 어미돼지는 전두수(4만여두)를 검사한 후 양성돼지를 연말까지 도태하는 농가에게는 " 모돈갱신자금 "을 지원하되 그렇지 않은 농가는 특별관리를 실시(비육돈은 금년 11월까지 도축장 출하로 자연도태됨).**
- **소독약품 · 방역차량 · 폐사축 운반차량 지원과 검사를 위한 비용 등을 투입하기로 함.**

□ 한편, 제주도내 항체발생 농장에서 아직도 일부 돼지가 죽고있는 원인을 일부 임상수의사와 양돈단체들이 만성 돼지콜레라에 의한 것으로 주장을 하기도 하나

○ **만성 돼지콜레라는 특정지역이나 돼지의 연령에 관계없이 발생하고 폐사가 이루어지는데 반하여,**

○ **제주도의 경우 현재 항체 발생농가의 새끼돼지를 중심으로 폐사가 나타나고 있으며, 폐사돼지에 대한 검역원(역학조사위원회)의 검사(조사)결과 세균성패혈증 등 복합감염이 원인인 것으로 밝혀졌음.**

□ 또한 배합사료 업체에서는 비싼 혈분사료 등 면역 강화제를 사용할 이유가 없고 문제가 된 사료의 급여를 중단한 이후에도 돼지폐사가 계속되고 있다고 주장하기도 하나

○ **최근 PRRS, PMWS 등으로 피해를 입은 농가가 이의 예방 및 치료에 혈분 등 면역강화제 첨가사료가 효과가 있다는 광고를 보고 사료를 구입하여 사용한 실적이 있고**

- **배합사료 업체의 점검결과 자돈 및 임신말기용 일부 사료에 혈분 등을 사용하는 것이 확인되었음.**

○ **아울러 제주도 농장에서의 돼지의 폐사를 근본적으로 줄이기 위해서는 밀집사육 방지, 통풍 등 사육환경 개선과 질병방역관리에 농가의 노력이 전제되어야 한다는 것이 전문가의 견해임.**